

화순군 'K-바이오 랩 허브 구축사업' 유치 나서

3000억 규모 신약 개발 등 지원 치료제·백신 등 창업기업 육성

전국 유일의 백신산업특구로 지정된 화순군이 'K-바이오 랩 허브 구축사업' 유치를 나섰다.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K-바이오 랩 허브 구축사업' 후보지 공모에 유치 희망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들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2일 바이오 신약 개발 창업기업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K-바이오 랩 허브 구축사업 후보지 공모를 시작했다.

이 사업은 국비 2500억원 등 총 사업비만 3350억원에 달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창업 입주 공간, 공동 활용 장비, 신약 개발 등을 지원하는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치료제와 백신 등 신약 개발 창업 기업을 육성하는 게 핵심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4일까지 세부 사업계획서를 받은 뒤 6월 현장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사업 예정지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예정지로 선정되면 창업 기업 입주 공간, 커뮤니티 공간, 핵심 연구·공용장비 300여 종, 동물 실험시설, 생물안전 연구시설, GMP 생산시설, 생화학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구축하게 된다.

특히 국내외 제약사·병원 등과 임상 단계 협업 지원 등을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화순군은 전국 유일의 백신특구로 지정돼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전 임상, 임상, 위탁생산, 인증 지원까지 모든 단계를 원스톱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점을 장점으로 부각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유치 분위기 확산을 위해 화순군의회 의 재정 부담 확약과 의회 차원의 유치 지원 서명을 받기로 했다.

구중군 화순군은 "화순백신산업 특구의 산업 기반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해 연구개발, 기술 창업, 기업 유치 활성화 등을 꾀하기 위해서는 K-바이오

랩 허브 구축사업 유치가 필수적이다"며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중소벤처기업부가 바이오 신약 개발 창업기업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K-바이오 랩 허브 구축사업 후보지 공모에 나섬에 따라 화순군이 유치 작업에 나섰다. 후보지 위치도. <화순군 제공>

램 허브 구축사업 유치가 필수적이다"며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성장학회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기탁 잇따라

장성군에향운동본부 1000만원 기탁 이병갑 300만원·유성록 100만원

재단법인 장성장학회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이 잇따르고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군에향운동본부(본부장 변동운)는 타 지역에 거주 중인 장성 향우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3일 고향의 후진 양성에 써달라며 1000만원을 기탁했다.

장성군에향운동본부는 기탁금과 함께 1000만원 상당의 미술작품 3점을 지역 복지시설에 기증하기도 했다.

제주도에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출향인사 이병갑씨는 최근 장학회에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씨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요즘, 학업

에 열중하고 있는 후배들을 후원하고 싶어 기탁을 결정했다"고 기탁배경을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장성장학회 유성록 이사도 지역 후배들의 학업에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장성고등학교 3회 졸업생이기도 한 유 이사는 "앞으로도 꾸준히 기부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장성장학회 이사장인 유두석 장성군수는 "기탁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사회 각 분야에서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과 학업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장학회는 올해 들어 10명이 기탁에 참여한 민간기탁금 5900만원을 확보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 향우들의 모임인 장성군에향운동본부가 지난 3일 장성장학회를 찾아 장학금 1000만원과 그림 3점(10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장성군 제공>

10년간 성과 미미...민간 연구소보다 못한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중군개발·산업화 독자 연구 못해 농가 "전국 출연기관 육성 시급"

지역 버섯산업의 발전을 위해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을 전국 출연기관으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버섯 유전자원 확보와 표고 신제품 개발 및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전국 유일의 버섯을 연구하는 연구원이라는 타이틀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중군 개발이나 산업화를 위한 기반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채 기초 연구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1263㎡ 장흥도립대 폐교 부지)에 자리한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연구원 박사(7명), 석사(3명), 일반직(8명) 등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42종(248대)에 달하는 버섯가공 산업화와 유전자원성 분야 연구장비가 마련돼 있다.

군 산하 직속기관으로 설립 당시(2009년) 출연금 12억원, 군으로부터 매년 3억~5억원의 운영비

와 연구비 명목으로 국비 5억원을 지원 받아오다 지난 2018년부터 군비와 국비가 각각 10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표고버섯 농가들이 버섯산업연구원에 요구하고 있는 중군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연구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에 재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섯농가들은 버섯산업 연구원의 신제품 중군개발이 이뤄지지 못하는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버섯중군은 산림청 국립과학원과 산림조합 산림버섯연구센터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해 판

매회사를 거쳐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버섯전문 연구직이 맡아야 할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장 역시, 지난 2014년부터 공석인 상태에서 군 일반행정 사무관이 겸직하고 있어 조직에 활력을 주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장흥군 버섯산업 관계자는 "열악한 지자체로서 특수작물을 관장하는 연구원 운영은 재정·기술지원 등에 한계가 있다"며 "농촌진흥청 산하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직속 출연기관 체제로 운영돼야 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표고버섯 주산지인 장흥군의 견보적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1100t)의 25%인 270t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함평축협, 내년까지 명암축산농공단지 식품 가공공장 건립

함평축협은 내년까지 함평 명암축산농공단지내 식품 가공공장을 건립한다.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전남도, 함평축협과 최근 이러한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함평축협은 총 44억원을 들여 연건평 2000㎡ 규모의 첨단시설과 친환경 시설을 갖춘 식품 가공공장을 건립한다.

앞서 함평축협은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내 9916㎡ 규모의 공장용지 분양 계약을 했다.

공장이 완공되면 한우 육개장, 설렁탕, 도가니탕, 사골곰탕 등 간편식과 육류가공 제품 생산으로 연간 20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한편 함평군은 함평한우의 고부가가치와 연계할 수 있는 육가공 전문 식료품제조업을 명암축산 농공단지 내 입주 업종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명암축산 농공단지는 지난해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돼 각종 규제 특례, 세제·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2022년까지 기반시설인 테마공원 및 음식특화거리 등을 포함, 단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함평=황은하 기자 hwang@kwangju.co.kr

담양소방서, 재난 대응 강화 상반기 전술훈련 평가



담양소방서는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1년 상반기 전술훈련 평가'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일부터 실시된 평가는 이틀간 화재진압·구조구급·공기호흡기 장착·로프 매듭법 등의 분야를 평가했다. <사진>

전술훈련 평가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라 현장 부서에 근무하는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된다.

박상래 담양소방서장은 "이번 전술훈련 평가로 실질적인 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익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똥똥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영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